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는 농업한마당축제 열린다

5일부터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서 개최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2011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열린다.

11월 5일(토) 오전 10시 식전행사로 풍물단(농악) 및 모듬북 공연에 이어 한해농사를 마감하고 풍년농사의 결실과 수확의 보람에 감사드리며 평안을 기원하는 추수감사제례에 이어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1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의 막이 오른다.

개회식에는 사천시관광홍보대사인 가수 현미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저녁 7시에는 현철, 김용임, 현진우, 박구윤, 한영주 등 인기가수와 18인조 악단이 펼치는 윈을 라이브 축하무대와 가을밤을 수놓을 불꽃놀이 등 다

양한 이벤트로 시민위안행사가 펼쳐진다.

주요행사내용으로는 우리의 우수 농축산물 전시와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특별할인 판매행사 및 시음·시식회를 비롯하여 우수 농·특산물, 국화, 분재, 나비, 농기자재 전시전이 사천공설운동장내 전시코너에 마련된다.

또한, 도시소비자와 시민이 생산자와 한마음으로 소통을 위한 꽃마차타기, 탈곡작업, 전래놀이, 천연염색, 두부, 대피리, 도자기, 연 만들기 시연 및 체험행사와 사천단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농업한마당 어린이사랑 대회가 펼쳐지며, 작목별 연구회 활동과 수출관련 바이오 초청 부스를 설치 운영한다.



오는 5일부터 2일간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한해 농사의 시름을 잊고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는 2011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사천성당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은 물론 시도1호선 주요도로변에 청사초롱과 시민의 열원을 담은 소망등 5,000여등을 달고 지난 10월 25일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

읍면동 농업인노래자랑과 관내 국·공립보육시설과 사립어

린집연합회 어린이장기자랑 등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인의 자기진작은 물론 지역 농·축산물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체험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된 2011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윤기나는 사천단감 수확 한창

단감생산지로 유명한 사천시 정동면 고읍마을 단감이 지난 달 중순부터 한창 수확중이다. 고읍마을 현지 농장이나 선별장에 가면 싱싱한 단감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도 가능하다. 사천단감은 올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1,200톤 가량이 수출될 예정이다. 매년 단감수확기에 맞춰 열렸던 정동 단감축제도 11월 5일부터 열리는 사천농업한마당 축제에 포함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사진·글/곽동진

2011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주요행사 및 일정

◎ 첫째날 11월 5일(토)

시 간	행사명	내 용
10:00 ~ 10:50	식전행사	농악(풍물단), 모듬북 공연, 추수감사제례
11:00 ~ 11:45	개막행사	개회식
11:45 ~ 16:30	노래자랑·장기·공연행사	초청가수무대, 농업인 노래자랑, 어린이 장기자랑 외
10:00 ~ 20:30	전시행사	우수농축산물, 국화(난) 전시, 분재전시, 농기자재, 소망등 전시, 농경문화 사진전, 전국호박 품평회 및 전시회, 이주여성 작품전, 외국농산물 비교전시 등
11:00 ~ 20:30	특별할인판매	양곡(쌀, 보리쌀, 밀), 단감, 참다래, 고추, 녹차, 파프리카, 버섯, 한우고기, 돼지고기, 기능성계란, 관엽식물
10:00 ~ 18:00	시골장터	식품류(메밀묵, 도토리묵, 두부, 시래기 등) 판매, 고구마, 호박, 소채류, 떡메치기, 행취기
10:00 ~ 18:00	농촌체험	꽃마차 타기체험, 탈곡작업, 두부 만들기, 전통가정주 체험, 대피리 만들기, 민속 연 만들기, 도자기 체험, 전래놀이
10:30 ~ 18:00	시음·시식회	탈리아스, 사천코뚜레한우고기, 돼지고기, 다래와인, 향토음식, 감식초, 우유, 양봉, 기능성 계란
11:45 ~ 13:00	사천단감한마당	지역별 우수 단감 전시, 꺾기·쌓기대회, 시식회
14:00 ~ 15:00	농업한마당어린이사랑대회	초등부, 유치부 대상 현장에서 그림 그리기
19:00 ~ 20:30	축하공연불꽃놀이	초청가수공연(현철, 김용임, 현진우, 박구윤, 한영주 외)

◎ 둘째날 11월 5일(토)

시 간	행사명	내 용
11:00 ~ 16:00	축하공연	부채춤, 입춤, 민요메들리, 태평무, 초청가수공연, 성인밸리댄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태권도 시범, 각설이 공연, 시민장기자랑
13:00 ~ 14:30	수금가공연	별주부전 수금가 공연
09:00 ~ 16:00	전시행사	우수 농축산물전시, 국화(난) 전시, 분재전시, 나비·곤충전시, 농기자재, 소망등 전시, 농경문화 사진전, 이주여성 작품전, 외국농산물 비교전시, 전국호박 품평회 및 전시회
09:00 ~ 16:00	특별할인판매	양곡(쌀, 보리쌀, 밀), 단감, 참다래, 버섯, 고추, 녹차, 파프리카, 쇠고기, 돼지고기, 기능성계란, 관엽식물
09:00 ~ 16:00	시골장터	식품류(메밀묵, 도토리묵, 두부, 시래기 등) 판매, 고구마, 호박, 소채류, 떡메치기, 행취기
10:00 ~ 16:00	농촌체험	꽃마차타기체험, 탈곡작업, 두부 만들기, 전통가정주 체험, 대피리 만들기, 민속 연 만들기, 도자기 체험, 전래놀이
10:30 ~ 16:00	시음·시식회	탈리아스, 사천코뚜레한우고기, 돼지고기, 다래와인, 향토음식, 감식초, 우유, 양봉, 기능성 계란

사천아카데미 제61강좌

「얼굴과 인생」

11월 17일(목)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 2층

사천시는 오는 11월 17일(목) 오후 2시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국내 최고권위의 얼굴 분석가로 잘 알려진 얼굴연구소 소장 조용진 강사를 초청하여 「얼굴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천아카데미 제61강좌를 개최한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조용진 강사는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화가이며 동경예술대학교에서 미술해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카톨릭 의과대학에서 7년간 인체 해부학을 연구하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일의 의대출신 동양화가이다.

얼굴 연구가 실용적인 것이 많아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건별 로봇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우주에서 중



조용진 소장

■강사 약력

- 충남 서천 출생
- 홍익대 및 동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도쿄예술대학대학원 미술해부학 박사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 한남대학교 객원 교수(現)
- 조용진 얼굴연구소 소장(現)

■주요 시집

- 『얼굴』, 『한국인의 낮』, 『미인』 등

력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연구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 30여년간 미술가로서의 감수성과 해부학자로서의 전문성, 발명가로서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얼굴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축해 왔다.

조용진 강사는 현재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객원 교수이면서 얼굴 연구소 소장, 한국면학회 이사, 일본미술해부학회 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KBS 아침마당', 'TV

특강 행복플러스' 등 다수 방송에도 출연하였고, 주요저서로는 『얼굴』, 『한국인의 낮』, 『미인』 등이 있다.

이번 강의는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 알지 못했던 내 얼굴에 나타난 또 다른 나를 찾아보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얼굴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한 만남」 농촌사랑! 생명농업의 가치창조
「사천농업의 새로운 꿈과 희망」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2011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 일시 | 2011. 11. 5(토) ~ 6(일) 2일간 | 장소 | 사천공설운동장

| 주최 |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사천시, 농업기관, 농업인단체, 작목반단체

출연진 안내

현 철 김용임 현진우 박구윤 한영주

어르신들의 축제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노인복지 위해 헌신한 김대윤 어르신 등 18명 수상

사천시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지회장 김흥주)는 지난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경로효친 상상을 계승·발전시키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 1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10월 13일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장을 비롯한 국외의 원과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과 800여명의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한 서동익 김대윤 어르신의 1명이 경상남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사천읍 김태식 어르신 외 7명이 사천시장상을, 사천읍 정태오 어르신 외 7명이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식후 행사로는 밸리댄스 및 마술공연, 무대각설이, 지역 유명 가수 초청공연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고 행사 중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제공하여 흥겹고 신명나는 한때를 선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요양시설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함께함으로써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고 사천 관세자는 전했다.

한편 사천시는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천시 청소년 문화존, 프리마켓&바다음악제 개최

사천시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는 10월 15일 오후 3시부터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야외행사에서 청소년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리마켓&바다음악제(가을클래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중고물품 교환 및 판매를 하는 프리마켓 운영과 양초 공예, 쿠키클레이, 요술풍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16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었다.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청소년 가을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다.

프리마켓 운영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가져와 교환하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판매 수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을클래식 음악회는 한곡음악협회사천시지부 소속 페스티벌 챔버 오케스트라를 초청하



여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흥미롭고 생동감 넘치는 클래식의 감동을 안겨 주었다.

사천시새마을금고협의회 사랑의 컴퓨터 전달

자원봉사단도 운영... 사랑의 나눔 실천

사천시새마을금고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사천시시장실에서 장애인부모회 사천시지부(회장 최준기) 외 17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에 컴퓨터 21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날 전달한 사랑의 컴퓨터는 2010년 12월 10일 사천시와 사천시새마을금고협의회가 지역 희망공헌사업 협약체결에 따라 사천시 관내 새마을금고인 사천새마을금고(이사장 이승열), 죽동새마을금고(이사장 장호기), 사남새마을금고(이사장 김형년), 삼천포새마을금고(이사장 정홍찬), 노산새마을금고(이사장 송경대), 한국항공새마을금고(이사장 허세찬)에서 1,500만원의

기금을 모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컴퓨터 21대를 기증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실천하였다.

한편, 사천시 관내 새마을금고는 54명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장애인부모회, 열린학교 점심봉사, 결혼가정 도배·장판교체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 장학금 1,400만원 지원,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에 쌀 지원, 각 지역 경로행사, 노인복지시설 방문,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저축은행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사천시 관내 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비율(BIS)은 매우 안정적인 편만 아니라 예금자보호제도를 법령으로 명문화하여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설치·운영하여 2001년부터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안전기금 및 자부준비제도를라 는 또 다른 안전장치로 예금자를 보장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예금을 찾지 못한 예금자가 없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년도 자산 100조원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천시 청소년 역사·문화순례 행사

내고장 애향심·자긍심 고취하고 미래 희망 배양

사천시가 주최하고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가 주관하여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5회에 걸쳐 관내 8개 고등학교 1학년 1,067명을 대상으로 『2011 사천시 청소년 역사·문화순례』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 발전의 구심

점인 일반산업단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견학하고, 선진리성 일원과 작도정사 등 문화유적지와 사천늑차단지, 창선·삼천포대교, 사천대교, 남일대 체육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심도있게 탐방하였다.

특히, 선진리성 등 문화유적지

3개소에는 전문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2011년 역사·문화순례 행사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우리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2011. 사천시 청소년 역사문화순례 (주최: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이해를 심어주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사천시와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관내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과 가족 40명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 14일에는 합천 예인촌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축전장을 찾아 도예체험과 문화체험

을 하였고, 11월에는 지리산 자연휴양림을 찾아서 가을산행 및 현장체험과 문화재를 찾아 탐방하기 등 문화탐방을 실시하게 된다.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에게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

해 자존감 향상 및 사회 적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 제2기 장애 및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주최: 사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란?

2011.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것

201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 2011. 10. 31
- 필지 수: 4,054필지
- 열람: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민원지적과 인터넷열람: 시청 홈페이지(인터넷 민원/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기간: 2011. 11. 1~11. 30
- 이의신청인: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처: 토지소재 읍·면·동 및 시청 민원지적과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시 홈페이지 게재)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831-2830~2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등 온라인 신청 안내

2011년 9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1. 9. 15 ~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시)
- 신청장소: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ro.go.kr)'에 접속 후 '온

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아이 사랑 보육 포털 (www.childcare.go.kr), e유치원시스템 (www.childschool.mest.go.kr) 에서도 신청 가능
○ 문의사항

- 보육료 및 양육수당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유아학비 문의: 02-2267-9009
-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831-2667

꼭 알아주세요!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한 상식

공통사항

○ 농기계 보관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자



-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있게 합니다.
-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니다.
-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놓습니다.
-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니다.

○ 논·밭 출입은 안전하게 하자!



-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니다.
-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운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니다.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않습니다.
-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 긴 머리카락은 모자속에 넣거나 묶습니다.
- 보석류는 빼고 작업에 임합니다.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 농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하자



- 점검·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니다.
-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합니다.
-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합니다.
- 음주운전은 심적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험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 방화지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니다.
-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는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합니다.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습니다.
- 야간 또는 약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합니다.

○ 휴대형 예취기



-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재초날을 톱 대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농기계별

○ 경운기·관리기



-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끊고 합니다.
-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니다.
- 내리막 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니다.

○ 트랙터



-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끈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합니다.
- 안전 락 또는 프레임에 장착합니다.
-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합니다.
-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 콤바인



- 콤바인을 차량에 실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용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니다.
- 막힌 짐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니다.
-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붉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니다.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니다.

○ 사고발생 시 행동요령

- 가장 먼저 119로 연락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 ※ 정확한 응급처치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골절상을 당했을 경우
 -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한 후
 -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함
 - 골절부분의 고정물 부상을 주의하여,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한 길게 대어야 함
- 화상을 당했을 경우
 - 10분 이상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진정
 -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끈 끼는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함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말 것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말 것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함

사천읍

덕진 봄 아파트 대형 태극기 게양



오는 12월 420여 세대 입주예정인 사천 덕진 봄 아파트(주 덕진종합건설)에서는 10월 중 국경일을 기념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로 15m, 세로 10m 규격의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덕진종합건설은 4차선 도로인 육산로와 근접한 덕진 봄 101동 아파트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여 도로를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태극기를 볼 수 있도록 하여 10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임을 알리는 동시에 집집마다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앞장섰다.

또한 읍시민안전봉사대에서는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에 태극기 받침대 무료 설치 및 태극기 나누어주기 운동을 펼쳤으며, 읍이장단에서도 태극기 1,000여 개 상당의 각 마을 단위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사천읍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펼쳐졌다.

2011년 사천읍시장 신바람장바구니축제 개최

사천읍에서는 10월 14일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가격경쟁에 밀려 침체에 빠진 사천읍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11 사천읍시장 신바람장바구니 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재래시장으로부터라는 주제와 상인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인교육관 완공을 기념하는 뜻 깊은 축제에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모시고 바지락 빨리까기 대회, 초대가수 박효빈, 소명, 한혜진 등의 축하공연과 각설이공연(고철통), 색소폰 연주(손남기), 부채춤(김정남 무용단), 불꽃쇼, 행운권 추첨 등의 여러 행사를 펼쳐 읍민들에게 재래시장의 활력과 친근함을 전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정동면

정동면 여성재향군인회 1일 병영체험



정동면 여성재향군인회(회장 안태순)는 지난 10월 6일 사천 제118연대 4세대 훈련장에서 1일 병영체험을 했다.

이번 병영체험은 육군 훈련체험을 통하여 국가 안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군 통합 항도 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실시했으며 병영체험은 사천 제118연대 4세대, 정동면예비군중대본부와 협조하여 4세대 교육훈련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원들은 제식훈련을 통해 일사분란하고 질서정연한 군인 기본자세와 총검술, 화생방, 앞드리고 누워서 철조망 통과하기, 서바이벌 게임 등 각종 전투훈련을 통해 인내심과 극기력을 배양했다.

사남면

가천저수지 설치사업 기공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시지사(지사장 하일규)는 지난 10월 20일 사남면 가천마을 현장사무소에서 시 관내 기관단체장들과 마을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가천저수지 설치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2010년 11월 시작된 가천저수지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37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하여 제방높이 40m, 연장 245m, 저수량 109ton에 수혜면적 145ha를 계획으로 2015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나라사랑 실천을 위한 태극기달기 앞장

사남면사무소(면장 강연주)에서는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태극기달기 운동을 실천함에 있어 시내 주요도로변 5개소 및 아파트 밀집지역 3개 단지를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전 면민이 자율적으로 태극기를 달도록 실천을 당부함은 물론 분위기를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남면 월성리 소재 진사주공아파트 주민일동은 300여만원의 아파트 기금을 활용하여 태극기 660개를 구입, 전 세대에 태극기 무료보급과 국기달기 홍보로 나라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용현면

사랑의 밑반찬 봉사활동



용현면자원봉사회(회장 허숙녀)는 지난 10월 12일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 및 독거노인을 위해 밑반찬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회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에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허숙녀 회장은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회원들이 마음을 합쳐 성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축동면

가산오광대 진주·창원에서 공연(시월애)

지난 10월 15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16일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탈춤 '가산오광대'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우리의 무형문화재인 '가산오광대'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의 유아한 출사위에 객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은 우리의 전통 탈춤 '가산오광대'의 매력에 푹 빠져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MBC경남에서 주최하고 사천가산오광대 보존회(회장 한우성)에서 주관한 이번 공연(시월애)은 양일간 진주, 창원에서 펼쳐졌으며 우리의 훌륭한 문화재를 보존·발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가산오광대는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바르게살기운동 축동면협의회 법질서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축동면 및 사천읍 협의회와 사남면 여성명예소장 등 회원 50여명이 모여 합동으로 지난 9월 28일(수) 07:30 ~ 08:30까지 축동면 불계이트 입구에서 법질서 확립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곤양면

2011년 곤양향교 추계 석전대제 봉행



지난 9월 28일 10시 곤양향교에서 유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 정만규 사천시장, 아헌관 이원식 전 사천시 의회 의장 그리고 종헌관은 강규봉 사천수협장이 맡아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하였다.

봉행은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과례'를 시작으로 5성위 앞에 첫찬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의식인 초헌례에 이어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철변두 등의 의식을 거쳐 폐백과 축문을 불살라 재를 땅에 묻는 망요례까지 유교 제례순서에 따른 옛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였다.

LIG인재니움 사천, 이웃돕기에 나서

LIG인재니움 사천 연수원(원장 김성국)은 지난달 10일 곤양면을 직접 방문하여 지난 9월 2일 연수원 준공식 때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총 85포 1,030kg, 환가액 216만원)을 어려운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기증했다.

김성국 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수원 준공의 기쁨을 곤양면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나아가고 사천시민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쳐 사천시와 함께 하는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곤명면

2011 '밝은 땅 다솔축제' 개최



곤명면 밝은 땅 다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밝은 땅 다솔축제'가 지난 10월 5일(수) 곤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및 인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1년 내내 농사짓는다고 고생한 곤명면민이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다는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로 4회를 맞이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리산합소오케스트라 연주, 큰들문화예술센터 마당극, 농가주부모임 스포츠댄스, 초청가수(한반)트롯트 한마당 등 준비된 공연들이 참여한 주민들에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가을저녁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축제가 되었다.

서포면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에 금진 후포마을 선정



10월 6일 사천소방서(서장 김용식) 주관으로 화재피해 저감 및 협력적 소방정책 지원을 위한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조성' 선정식이 금진리 후포마을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후포마을 전 세대에 소화기가 지급되고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었으며, 마을이장(주영식)이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되어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였다.

한편, 당일 행사에 삼천포서울병원 이동진료소의 무료 건강검진 및 진주축적 미용학원 원생들의 미용봉사로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포마을 자체 물양장면 5만㎡ 유채꽃 단지 조성

서포면 자체리 구포마을(이장 윤유복)에서는 천혜의 자원인 사천대교가 있는 자체 물양장 주변 5만㎡의 부지에 내년 5월초 개화를 목표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만든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9일부터 3일동안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부지조성과 종자 파종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회까지 물주기와 풀매기작업을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동서동

동서동 조직단체원 단합행사

동서동 11개 조직단체 120여명은 지난 10월 28일 전북 고창 선운산으로 단합행사를 다녀왔다. 평소 시정 및 동정에 적극 참여해 오면서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1등 동서동,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친절봉사 100일운동에 수고가 많았던 조직원 상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세대 실태방문조사 실시



동서동주민센터는 동절기를 앞두고 관내 장애인 세대(707명)를 방문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신규제도 서비스, 변화된 내용,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실태방문조사를 오는 11월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건강·영양상태, 주거환경, 생활실태 등을 방문조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을 중심으로 수급자 발굴 등의 서비스로 연계할 방침이다.

선구동

국기 및 시기 교체로 국기달기 분위기 확산



선구동주민센터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배영만)는 10월 중 국기 달기 운동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27일부터 3일간 선구동 관내 14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낡은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교체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지속적으로 경로당의 국기 게양대 및 국기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산불 예방 캠페인 및 산지 정화 활동

선구동주민센터와 선구동통합협의회(회장 탁갑용)는 10월 21일 각산 등산로 일원에서 통장 23명과 주민자치학습위원회 회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 캠페인과 산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산불조심 예방 플래카드 게시와 아울러 각산을 산행하는 시민과 등산객에게 홍보 전단 배부 및 등산로 주변 산지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동서금동

통창공원 준공식 가져



동서금동주민센터는 지난 10월 4일 동주민의 쉼터가 될 통창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오랜 공사 끝에 완공된 공원이라 그런지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식을 지켜보고 다과회에 참석하는 등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은 더운 낮에는 시원한 인공폭포를 즐기고 선선한 저녁에는 간단한 산책 및 체육시설을 이용한 운동을 즐기는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동서금동 자원봉사협의회 목욕봉사

동서금동 자원봉사협의회(회장 박영순)는 지난 10월 6일 날립대 해수월드로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했다. 이날 어르신들은 지친 몸을 봉사단원들에게 맡기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느끼며 영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목욕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봉사도 해오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목욕을 해드리면 환한 미소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봉사자들이 감사하다"면서, 향후에도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과 함께 더욱 활기차게 목욕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용동

별용동 전 조직단체 합동 단합대회 가져



별용동(동장 정한용)은 지난달 28일 체육회(회장 윤태용) 주관으로 경남 합천에서 자생단체 회원 120여명과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별용동 자생단체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바탕으로 별용동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별용동 자생단체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별용동 윤태용 체육회장은 "그 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별용동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묵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각 자생단체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단합대회가 시정과 별용동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향촌동

향촌동 주민자치위원회 도로변 꽃잔디 조성



향촌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대환)는 주민자치위원, 통 직원, 노인일자리 어르신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내 도로변 꽃 잔디길 조성행사를 지난달 5일과 6일 2일간 시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향촌오거리에서 남립주유소(남립로) 구간과 모레 마을 도로변에서 해수육장 입구(남립대로)까지의 총 2.2km 구간을 대상으로 꽃잔디 1,000주를 식재하였다.

꽃잔디는 다년생 식물로 가뭄·홍수에 강하고 한번 이식하면 다년간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로, 가로수와 어우러져 5월 만개시에는 꽃동산을 꾸민 듯 생기가 있고 화사한 거리 조성으로 향촌동을 찾는 내방객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산초 '녹색사천만들기 자전거캠페인 행사' 가져

용산초등학교(교장 정운봉)는 지난달 12일, 사천시 시내를 자전거와 도보로 행진하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환경보호 의식 고취를 위한 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용산초등학교는 'VIP기움교육을 통한 글로벌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인 '체육(Power)기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날 자전거 및 도보 참가자 학생들을 포함하여 지역유관기관 인사, 학부모, 와룡MTB동호회 등 1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자전거캠페인은 '녹색사천 만들기'라는 구호아래 용산초등학교를 출발, 농협로터리를 지나 삼천포공설운동장까지의 구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깊이 심어 주었다.

남양동

남양아카데미 제6강 예치과 강대성 원장 초청 강연

남양동주민센터(동장 조현문)는 남양동 자체의 주민 문화 교육프로그램인 남양아카데미 제6강을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남양중학교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남양아카데미 제6강은 남양동 출신인 진주 예치과 강대성 원장을 초빙하여 주민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강대성 원장은 남양동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 보철학회 '우수보철치료의사'로 선정되었으며 미국 임플란트 학회 정회원, 미국뉴욕대학교 임플란트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0년 4월 23일 문예춘추 신인문학상도 수상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남양아카데미는 남양동 출신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주민을 위한 유익한 교육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남양동주민센터와 남양동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제5회 남양동민 건강 걷기대회 및 남양열두거리제 개최



오는 11월 12일 남양 임내숲에서 제5회 동민 건강걷기대회와 '남양열두거리제' 행사가 개최된다.

남양동민 건강 걷기대회는 남양발전장학회(회장 김자성)와 남양동체육회(회장 박춘경)가 공동 주관하여 와룡산 명품 산자락길 6km를 걷는 코스로 늦가을 와룡산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진주·삼천포 농악보존회(회장 김선옥)에서 주관하여 우리 지역의 유서깊은 문화재(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인) 진주·삼천포 12차 농악 시연을 필두로 가산오광대, 판소리 공연 등 풍성한 전통문화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불소도포·스케일링 무료 실시

11월 30일까지 19개 초·중·고 전 학생 대상 구강질환 예방

사천시 보건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19개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일환인 학생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어른이 된 후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예방을 위한 것으로, 스케일링은 치석이 잇몸뼈를 파괴시켜 치아를 저절로 흔들려 빠지게 만드는 프라그(치태)와 치석(세균덩어리)을 조기에 제거해 줌으로써 치아의 평균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불소겔 도포법은 치아표면에 불소를 발라 치질을 단단하게 하여 세균의 효소작용을 억제시켜 충치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는 치아가 형성되는 학생 시기에 불소겔을 도포하면 어른이 된 후 불소를 도포하는 것보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사전에 감소시키고 구강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구강검진 및 상담, 올바른 양치교육 등 학생들에게 예방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치과진료차량을 이용하여 학교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무료로 실시 제공한다. 한편 시 보건소는 이번 사업으로 구강병 예방은 물론 의료

비 절감과 학생들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 공무원 정치후원금 2,000만 원 선관위 기탁

사천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장실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모인 정치후원금 2,000만 원을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함석천)에 전달하였다.

이번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후원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깨끗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문화를 건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의 소중한 자금이다.

정치후원금 제도가 활성화·정착되면 내가 낸 돈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

고, 특정한, 특정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사회·경제 질서가 바르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화합과 나라발전을 더욱 기대할 수 있어 민주정치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다.

한편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사천-제주간 18인승 소형 여객기 운항

KEA항공, 주 3회 1시간 10분 소요, 장기 운항 추후 결정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천시의 노력이 KEA항공(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의 사천-제주간 운항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난 10월 11일 오전 10시 사천에서 제주행 여객기의 취항을 시작으로 사천-제주간을 화·목요일(사천출발 10:00, 제주출발 12:00), 토요일(사천출발 09:00, 제주출발 11:00)의 주3회 운항을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KEA)와 (주)수양우등관광여행사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행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며 오는 11월 10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사천-제주 노선을 운항한 뒤, 운항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를 향해 날개를 펼치는 KEA항공 소형 여객기는 18인승으로 첫 취항이 있었던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 사천공항 대합실에서 사천시장의 축하, 테일 키팅, 승무원 꽃다발 증정 등의 취항식이 거행됐다.

이번 사천-제주 노선은 사천과 중국을 잇는 노선의 개설로 국



제공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천공항의 진로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EA항공측은 사천-제

주간 노선을 장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꼭 알아두세요! 행락철 산행 시 안전수칙

산행 시 행동 요령(산에 오를 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 이하로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다닌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 ①의식확인 ②호흡확인 ③맥박확인 ④출혈확인 ⑤얼굴색 ⑥체온·피부상태 확인 ⑦골절확인 ⑧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⑨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예방처치 지혈 상처처치·골절 처치

산악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 1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2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 셋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 3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4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간다.
- 5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 (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 6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 7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 8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 9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 10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시정 밖 소식

품어라 이상을! 펼쳐라 세계로! 2011 사천영재교육원 국제캠프 실시!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이자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 남해안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사천시청과 사천시의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됨은 21세기 국가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해준 사천시청과 사천시의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현권)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8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속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2011 사천영재교육원 국제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진행은 사천시청과 사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되었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영재 학생들의 경쟁력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식을 조기에 심어 주며, 기존의 패러다임에 굳어지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영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세계 경제 현장과 우리나라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자연적, 문화적 현상을 관찰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영재교육원에서는 특히 21세기 지구촌 리더

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국을 경험하고 문화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깊게 인식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자신의 성취목표를 세우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캠프의 일정은 해외 속 우리나라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상해 한국학교 방문, 중국의 발전상을 참관하는 도시계획관, 과학기술관 견학, 중국의 영재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항주 청소년궁 견학,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깝지만 먼나라였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의 교육기관과 문화유적지 현장체험을 통한 자아실현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중국의 영재교육 실태를 체험해봄으로써 영재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국제 캠프는 사천시청과 사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등수

학반 정용렬(제일중) 학생은 "우리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그 자체이다! 이번 체험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체험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흔하게 겪지 못할 것이기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역사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현권 사천영재교육원장은 "이번 국제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천시청과 사천시의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낀 소중한 경험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자라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도 영재교육원 국제캠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지역, 나아가 우리 국가의 인재육기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순천 청암대학교 사천캠퍼스 봉사단 '한결같이' 어르신 무료목욕 봉사

순천 청암대학교 사천캠퍼스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한결같이' 봉사단원 30명은 지난 9월 25일 전남 구례군 일원에서 사천지역 소외계층 어

르신을 모시고 무료목욕 봉사와 어르신들의 살아오신 이야기 함께 나누는 소중한 행복 바이러스 시간을 가졌다. '한결같이' 봉사단원은 주간

에는 각자의 직장생활을, 야간에는 사천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복지학 학업에 전념하는 한편 주말에는 자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특히 지역 문화체육 등(항공우주엑스포)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중경야독 대학생의 참다운 연행을 연중 펼치고 있다.



꼭 알아두세요! 행락철 산행 시 안전수칙

산행 시 행동 요령(산에 오를 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 이하로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다닌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 ①의식확인 ②호흡확인 ③맥박확인 ④출혈확인 ⑤얼굴색 ⑥체온·피부상태 확인 ⑦골절확인 ⑧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⑨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예방처치 지혈 상처처치·골절 처치

산악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 1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2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 셋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 3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4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간다.
- 5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 (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 6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 7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 8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 9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 10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정치후원금!

작지만 깨끗한 정성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희망도 커집니다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의 10%인 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 공제대상)

인터넷 검색하여 정치후원금 을 기부하세요
www.give.go.kr



(우주항공소년 또독이의 항공 이야기-95)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

항공 교통량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항공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하늘의 교통신호등역할을 수행하는 항공교통센터(ATC)의 중요성은 더욱 더 크게 인식되고 있다. 항공교통센터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을 관할하는 곳으로, 1952년에 처음으로 미 공군이 미국의 중앙항공관제소 형태로 대구에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1958년 한국 공군이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건설교통부가 공군으로부터 중앙항공관제소를 인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체제에 준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항공

교통관제소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후 늘어나는 교통량과 보다 질 높은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제시스템 도입과 함께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인천 항공교통관제소로 개칭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 7월부터 항공교통센터로 개칭하여 운영 중이다. 즉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항공관제업무가 대구관제소에서 인천공항에 있는 교통관제소로 옮겨오게 되었고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의 명칭도 2001년 10월 1일자로 대구 비행정보구역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으로 변경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및 원활한 수색, 구조 활동

을 위해 비행정보구역(FIR)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FIR은 영공 및 공해상공을 포함한 공역에서 영공주권보다는 항공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명칭은 국명이 아닌 지명으로 돼있다. 항공교통센터 업무는 인천비행정보구역(FIR) 내를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보 및 항공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항공관제 즉 항공교통관제란 항공기를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통관제 시스템으로서,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와 항공교통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비행중인 모든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순서 그리고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항공교통관제관이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항공교통센터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유일한 항공로 관제기관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최상의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을 갖추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전국공항, 교통관제단 항공기를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통관제 시스템으로서,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와 항공교통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비행중인 모든

말(言) 한마디가 천냥(千兩) 빛을 갚는다

“대저학자(大抵學者)는 수참활구(修參活句)요 막참사구(莫參死句)이니라”라는 글귀가 있다. 이는 배워야 할 사람은 살아있는 말(言)을 구할 것이요, 죽은 말(言)은 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말(言)은 기운이 좋고 기쁨과 용기를 주나 죽은 말(言)은 기운이 풀리고 우울하며 권태스러운 것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라는 옛 어른들의 깊은 뜻으로 여겨진다. 사람이란 한자로 아으로 쓴다. 이 글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형상으로 사람이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 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한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필연적 순리로 부모와 지식간, 부부간, 형제와 친구 간, 타인과의 만남으로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 의해 변화하고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대화(對話)이며 곧 대화는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표현하는 수단이며, 또한 타인과의 타협이며,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지닌 것이다. 그러므로 말속에는 인간적인 향기와 진실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용기와 기쁨을 전해주는 지혜스러운 말(言)이어야 한다. 이러한 말이 타인을 감동케

하며 믿음(信)으로 전해져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하였다. 그러므로 믿을 신(信)자는 사람(人)의 말(言)이라고 글자로 표현한다. 오늘날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한다. 우리를 주변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정보는 생활의 편리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그로인한 극단적 이기주의는 나의 가치와 이익만을 우선시하여 남의 존재와 인격을 무시하는 개인주의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나타난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불만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전승되어온 정과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不信)의 사회로 변화하였음이 오늘 사회의 모습이다. 많은 언어학자들은 일상생활의 70%가 말이 좌우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말과 말을 잘한다고 하여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과 진실성이 말속에 있으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진실되고 예의스러운 말이 담겨져 있는지에 타인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가 있다. 조선시대의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의 일화에서 우리는 말의 지혜를 배울까 한다. 어느 날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 두 마리의 소를 몰고 가는 농부를 만났다. 황희정승은 농부에게 다가가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는냐고 물었더니 농부는 황희정승의 귀에 대고 소근거리며 말을 하

였다. 황희정승은 의아하여 그 이유를 물은 즉 그 농부는 어느 소를 지목한다면 다른 소가 얼마나 서운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비록 미물의 짐승에게도 배려할 줄 아는 조상님들의 지혜스러움이랄 할지라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 사이에도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지혜스러운 대화가 필요하다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지도자의 말을 들어왔지만 그들에게 한결같이 실망과 불신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는 타인을 이해하는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말의 불신이 모두를 힘lessly 하는 사회의 많은 지도자는 황희정승과 농부의 대화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진솔한 지혜의 덕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사랑과 지혜가 담긴 대화는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밝고 사람이 충만된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점이 담긴 속언이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불신과 갈등이 가득찬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사회가 서로 간의 믿음이나 오키는 사회로 될 적에 살아 유쾌한 진정한 정보화 사회로 발전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참말을 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믿음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가자. 김효명/부산시 해운대구

삶의 각잡이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비록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의 생활을 비교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너 자신을 알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너 자신의 마음을 보라. 자기를 먼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저절로 뽕은 생기기 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벗은 나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도 나 자신이다. 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나 자신 속에 있으며 나를 해하는 무서운 칼날도 나 자신 속에 있다. 이 두 가지 나 자신 속의 어느 것을 쫓느냐에 운명이 결정된다. 자기에 대한 존경, 자기에 대한 지식, 자기에 대한 이해 이 세가지만이 생활에 절대적인 힘을 가져다 준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아니다. 반성하고, 사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자기의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전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만일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이 이성이 계시

하는 참다운 길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진리를 두려워 하지 말 것. 둘째, 타인에 대한 자기의 정의, 우월, 특권을 거부하고 유적함을 인정할 것. 셋째, 자기의 존재를 움직인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인간의 계율을 실행할 것. 어떠한 도움도 부끄러워 하지 않고 자기와 타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계와 싸울 것이다. 세상에 자기를 사랑하며 또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반면에 타인을 괴롭히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좋게도 나

쁘게도 말하지 말라. 기령 좋게 말을 해도 남들은 믿지 않을 것이며 또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이상으로 당신을 나쁘게 생각 할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공손하다고 제 스스로 말하는 자는 결코 공손하지 못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말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그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는 자가 현명한 사람이다. 김형태/사천읍

나

흑미(검은 쌀) 예찬

요즘 참살이 시대를 맞아 건강을 위해 흑미로 밥이나 떡을 해 먹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흑미에는 항산화, 항암, 항케 효과 있다고 알려진 안토시아닌이라는 수용성 색소가 있어 검은색을 띠게 된다. 검은 쌀에는 안토시아닌이 검은콩보다 4배 이상 들어 있으며, 비타민 B 군을 비롯하여 철, 아연, 셀레늄 등의 무기염류는 일반 쌀의 5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 이것은 노화를 촉진하거나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뇌졸중, 성인병, 암 예방에도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김복희/부산시 사하구

흑미는 겉이 검고 속은 희며 찰기가 있는 쌀이다. 농촌 여러 곳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어디가든 흑미는 흔하며, 쌀과 5% 정도 섞어 밥을 지으면 밥이 구수하고 찰기가 있으며, 비타민 B, E 등의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흔히 약쌀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일반 쌀에 비하여 아미노산과 철분이 풍부한 편이며, 셀레늄(Se)의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조각목에는 “검정 쌀이 어지럼증, 빈혈, 고혈압, 당뇨, 다뇨증, 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식품개발원

구원 하태열 박사님은 “흑미가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확인하였고, 콜레스테롤 저하 물질이 검은 쌀의 색소 성분이라고 밝혔다. 집에서 늘 하얀 쌀밥만 먹기 보다는 흑미를 구입해 적당히 섞어서 밥을 해 먹으면 맛이 좋고 빛깔이 아름다우며 영양도 풍부하다. 흑미로 만든 떡도 맛이 일품이다. 떡집엔 흑미를 섞은 다양한 종류의 떡이 선을 보이고 있다. 지금 당장 수확한 흑미를 구입해 하얀 쌀에 섞어 밥이나 떡을 해 먹어 보자. 윤기가 흐르는 흑미밥이나 떡은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보약 노릇을 하고 무병장수를 실현하는 비탕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경도/부산시 사하구

자녀에게 절실한 예절교육

지난 휴일에 자녀를 데리고 시립미술관에 다녀왔다. 화가들의 수준 높은 그림과 빼어난 조각 작품을 전시해 놓은 걸 보며 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었다. 역시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듯했다. 예술미가 풍기는 작품을 보면서 정신적인 위로와 안락감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흐뭇했다. 권태로운 일상의 피로나 무료함이 싹 풀려서 온몸에 힘이 났다. 그런데 무척 아쉬웠던 점은 부모가 데리고 온 일부의 아이들이 이리저리 날뛰며 다녀, 예

술품을 감상하는 데 적지 않은 방해가 되었다. 정숙을 요하는 미술관에서 놀이터마냥 뛰는 모습이 눈에 많이 거슬렸다. 미술관 안내요원들도 말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들도 방치하며 자신들만 미술품을 보고 있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전시장 등에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한다. 자녀에게 예술 작품을 보여 주며 문화지식을 드높이고 감성지식을 길러주

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예술 작품 감상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공공의 장소에서 제집 안마당인 양 뛰어 다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음식집이나 할인매장 등에서도 생떼를 쓰고 무례하게 뛰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부모는 자녀의 기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수상관하는 경우가 잦고 다른 사람이 참견하면 당신이 뉘대 남의 아이 기를 꺾느냐고 항의하는 일도 발생한다. 우리 속담에 ‘뉘든 송아지

엉덩이에 뽀뽀한다’는 말이 있고,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수염까지 당긴다’는 말도 있다. 자녀가 귀여울수록 공동체 사회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도록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세 살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가므로 어려서부터 좋은 버릇이나 예절을 가르쳐 심성이 반듯한 인간으로 자라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게끔 부모나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옥출/부산시 사하구

각산을 오르면서

희뿌연 하늘이 아침을 열고 있다. 각산을 올라오고 있다. 한 계단 한 계단 따라 올라오고 있다. 숨 가빠 허벅지며 꼭대기에 다다를 희망을 갖고, 약속한 잔 넘기며 산위에 걸터앉은 동녘 하늘 햇살 맞으려고 땀 흘리며 올라오고 있다. 숨을 몰아쉬고 있다. 아릅다운 나무들이 알몸 드러내고, 긴 팔을 뻗어 열키고 설켜서 땅을 붙들고 삶을 구가하는 몸부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뭣사람들의 발걸음 짓밟혀 뻘뻘질하다. 한 계단 한 계단 새벽얼아흙 계단 오르니, 오르는 길목에 오르다 지쳤는지 퍼질러앉은 바위가 가는 길 번거롭게 하고 있다.

언제 일어나려는지? 길섷, 고이 잠든 영혼님들아! 지나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한 번 들려 봐 주시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오면 밤이 오며, 쥐구멍에도 밧들 날이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며, 잘사는 이가 있으면 못사는 이가 있는 법이라.’ 고... ‘불행은 행복을 전제로 있는 법이며,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니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라고 깨우쳐 주시고, 저주도 하지 말며, 시기도 하지 말며, 탐하지도 말라.’ 고 꾸지람을 주십시오. 바르게 살고, 열심히들 살라고 격려도 해 주시고, 산을 오

르는 모든 분들께 건강이 제일이라고 일러도 주시오. 산을 찾는 모든 중생들아! 인간은 원래 빈손으로 왔으니 내 것이 어디 있는가? 잠시 내가 맡아있을 뿐이고, 갈 때는 모두 벗어 놓고 갈 것이 아닌가? 약수터 샘물 한 잔 마시면서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느끼며 살자. 행복은 오직 내 마음 안에 있거늘. 이윤식/선구동

한 조각한 조각 모자이크 한 듯한 삶을 짜 맞추다 보면 세월이 가고, 삶의 맛을 느낄 것이니 너무 서두르지도 탐하지도 말자. 떠오르는 햇살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공평하게 비추어 준다. 각산 약수터에 서서 두 팔 크게 벌리고, 숨 한 번 크게 쉬어 보고, 오늘을 희망차게 열자! 이윤식/선구동

그리운 부모님

오르내리던 산비탈을 홀로 두고 떠나던 날
빨갳게 익은 감나무까지 고개속여
잃어버린 석양
평생을 어깨에 메고 내려놓은 자국은 깊어
싸리, 대나무로 만든 대문이 보이고
황소로 논, 밭갈이에 땀 흘리는 목소리
들리고
참을 준비하느라 바쁜신 어머니님
식구 반찬 가득 담긴 장독대 닭으며
뚝뚝하게 자라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저녁 굴뚝연기 자욱하여 부르는 목소리 지나

아침 일찍 하시는 말씀은 하루의 계획
어둠 깔려야 알뜰히 마치는 일거리 연속인데
농산물을 상인들 벌이하려고 하나 더 없어
주셨다.
오번 장날에 뭘 사다 입힐까
웃 구경 하러 다녔던 시절 몇 장 개켜놓고
어느 길홍사예나 빛이라며 참석 하셨던
발걸음
글 모르는 설움을 이진하지 말아야겠다는
귀한 뜻
이 한밤 빛소리에 가득 서려 내리지만
눈물 자욱한 기운이 먼저 앞을 가립니다
변근철/용현면

고향 까마귀

고향 들녘에도 세월따라
기계가 가을 타작을 하겠지!
고귀한 가족의 생명을 살찌게 하여주던
기름 반지르한 쌀밥이 생각난다.
불타는 낙엽들의 추억도 그리워지고
먼저 떠난 어른들의 모습들이
그 시절의 풍령속에
다이아몬드 반지에 훌쩍 반해버린
심순애가 지금도 억울했던 배신감에
이제는 모두가 떠나가버린 전설이 되어
옛날 어른들의 연극배우들이었다.

어느 도인스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세상은 연극이야”
가을이 깊어가니
천지가 아득해지면서
나도
때로는 울고 싶을때가 있더라!
고향의 까마귀처럼
까악, 까악, 까악...
강남중/부산시 남구

독자투고 보내실 곳
사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E-mail: shgongbo@korea.kr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채택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독자 투고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위한 예산설명회 가져

사천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5일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대성 기획감사담당관은 우리시 재정지립도가 낮아 국·도비 지원으로 시 재정을 꾸려가고 있음을 역설하면서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방향에 대

한 설명과 더불어 지난 7~8월에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주민 설문조사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설명회 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제안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5일 사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꿈을 심는 인재육성, 꿈을 실현하는 사천시

최고 5백만원의 장학금 혜택

사천시에서는 학생들의 관외 지역 학교 유출 방지 및 학부모님들의 과중한 학비부담을 줄이고자 2004년부터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 8월에 장학기금 100여 원을 조성 목표로 (재)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6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매년 400여명에게 4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지원, 명문대 배출학교 인센티브 제공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영어민교사제 지원, 방과 후 학교지원, 관내 중3학년생에 대

상으로 서울대학교 등 국내 명문대학에 대한 현장 투어학습 기회 제공, 항공우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항공과학 영재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꿈을 심는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교육 부문에 집중 투자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2004년 67%에서 2011년 74%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진학하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함으로써 대학진학률 또한 2003년도 73%에서 2011년도 81.2%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1년도 서울대학교에

5명과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10개 대학에 총 43명이 합격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지역학교로 진학할 경우 유리한 내신 성적 산정은 물론 학부모의 학비부담 해소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내 고장 학교 진학이 유리하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학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토대는 물론 꿈을 심는 인재육성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굿바이 치매! 건강한 노년!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

사천시 보건소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

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이며,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며,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10~15% 정도에서는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호전될 수 있고 40~50%는 치매의 중

증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검진방법은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선별검사인 간이인지기능검사(MMSE-DS)는 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진단검사(전문의 진료, 신경인지검사, 치매척도검사 등)와 감별검사(혈액검사, 요 검사, 뇌영상 촬영 등)는 거점병원인 삼천포제일병원, 한마음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약을 복용중인 자에 대하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려는 어르신이나 가족은 사천시 보건소(☎831-3577, 3657)로 전화 신청을 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방치공 찾기'로 지하수 오염 막는다

사천시는 방치공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2001년부터 시작한 방치공 찾기 운동을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가 되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운동으로 방치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치공을 신고하면 시설 규모

에 따라서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리계획을 세워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시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방치공을 신고하여 환경을 살리는 일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방치공 신고는 사천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831-3261) 및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 전용전화(☎080-654-8080)로 연락하면 상시 접수한다.

정정지하수 보호 방치공 찾기 운동

신고기간: 연중임시
 신고대상: 사천시 관내에 은닉된 모든 방치공
 신고요령: 사천시 건설과 지하수담당 (055-831-3261 / 3262)
 포상금: 150mm 이상 대형 또는 양반과정 1공당 8만원, 150mm 미만 소구경형 관정 1공당 5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구
- 의료보험 3인 가구 기준(직장 154,927원 지역 185,076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 받은 후 입원하여 수술 또는 치료를 받은 영유아
- 입원 횟수와 상관없이 한번만 지원

의료비 신청 구비 서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8종

의료비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문의전화 : 831-3595

사천시보건소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 필요한 출생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이하 가구
- 의료보험 3인 가구 기준(직장 154,927원 지역 185,076원)
- 셋째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이면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비지원 가능병원 (삼성창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진주미래여성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료비 신청 구비 서류
 미숙아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8종

의료비 신청기간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문의전화 : 831-3595

사천시보건소

가을철 산불예방 안내

- 농산폐기물과 논 · 밭두렁 정리, 가을철에 해야 합니다 -

- 추수 끝나면 농한기! 이젠 아닙니다.
- 산불예방사업은 추수를 끝내고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논 · 밭두렁 잡풀을 낮이나 예초기로 제거합니다.
- 폐비닐은 지정된 장소, 쓰레기는 산과면 곳으로 옮깁니다.
- 산림 및 산림연접지(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봄불은 도깨비 불! 봄철 소각 정말 위험합니다.
- '봄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도깨비 불'이라고 합니다.

- 관행적인 봄철 소각, 산불이 되어 소중한 목숨까지 잃습니다.
- 매년 90여건 산불 발생(산불의 30%), 실제로는 2,200건 발생
- 매년 60여명 사망(80%가 70대 이상 고령자)합니다.
- 해빙기부터 영농준비까지 짧은 기간에 소각이 집중되어 행정기관에서 지원이나 단속이 어려워 산불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 논 · 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 논 · 밭두렁으로부터 전염되는 병충해는 없습니다.
- ※ 논둑 미세동물은 익충이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합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여해요 산불조심 함께해요 푸른미래

산불조심

기간 2011. 11. 1 ~ 2012. 5. 15

산불없는 푸른숲! 지구온난화를 막아줍니다!